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처치의 중요성

오늘날 과학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우리의 생활이 현대화됨에 따라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여러종류의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고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매년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인명피해를 주는 여러종류의 사고발생시 즉시, 현장에서 처치를 함으로써 치명적인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충격(쇼크)

○ 충격이란?

순간적인 혈액순환의 감퇴로 신체기능이 부진 또는 허탈한 상태를 말한다.

○ 원인

출혈, 심한 화상, 골절, 두부나흉부의 부상, 기타 충상자, 정신적인 원인등에 의하여 일어난다.

○ 증세

충격은 일시적으로 가벼운 정도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여러단계가 있다.

4. 부목대는법

부목에는 반드시 형질을 감아서 쓴다.



팔꿈치 골절:
겨드랑이 아래에 형질을
대고 부목은 손가락 끝까
지 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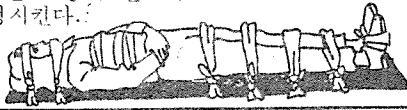
앞팔 또는 손목골절:
접은 삼각건 2장을
팔의 안쪽에 대고
부목을 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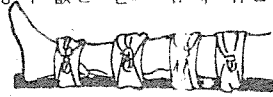
대퇴골 골절:
겨드랑이 밑에서 발끝까지 부목을
대고 두발사이에 담요를 넣어
이상이 없는 발도 함께 묶는다.



척추골절:
삼각건 11장이 필요하며 두발을 묶어 널판지에
고정시킨다.



무릎 골절: 발의 뒤축과 무릎 밑에
형질로 썬 부목을 맨다.



1. 얼굴색이 창백해진다.
2. 식은 땀을 흘린다.
3. 현기증이 나며 허탈상태가 된다.
4. 구토를 일으킨다.
5. 심하면 의식을 잃는다.

○ 응급처치

1. 자세: 머리와 몸을 수평으로 눕혀주는것이 일반적이나 머리에 부상이 없는 경
우는 다리를 약간 높여준다. 그러나 가슴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예외로
상체를 높여 호흡을 도와준다.
2. 보온: 충격시에는 혈관 위축으로 손발은 차갑게 된다. 체온 상실의 방지를 위
하여 담요, 오바, 윗옷등으로 따뜻하게 해준다.
3. 음료: 따뜻한 것을 줌으로써 회복을 빠르게 한다. 그러나 복부상을 입은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 심한 출혈시 또는 수술할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지 말
아야 한다.

출혈

1. 직접압박: 상처를 직접 압박하여 출혈을 막은후 붕대를 감는다.
2. 지압점 누르기: 손바닥 또는 손가락으로 동맥을 뼈에다 압박한다.

우리몸의 지압점은 ①측두동맥 ②안면동맥 ③경동맥 ④쇄골
하동맥 ⑤상박동맥 ⑥대퇴동맥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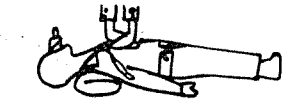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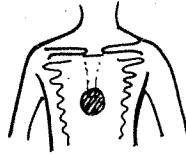
納凉특집

심장맛사지 (1분간 40~60회)

- 나무젓가락이나 수저에 형 짚을 쓴다.



- 홍골밀 $\frac{2}{3}$ (명치끝) 누름



- 딱딱한 마루바닥에 눕힌 후 어깨 밑에 베개를 고여준다.

- 팔꿈치는 수직으로 하여 홍골이 4~5 cm 압박되도록 함.

3. 지혈대 사용 : 1, 2로 지혈되지 않을 경우에 지혈대를 사용하는데 팔과 다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처 가까운 곳에 매어야 한다.

※ 지혈대 사용법

- 1) 상처에 가깝게 매되 심장쪽으로 맨다.
- 2) 맥박이 떨 정도로 완전지혈 한다.
- 3) 지혈대 누르는 간격은 20~30분 간격으로 한다. (지혈대 맨지 1~2 시간후)
- 4) 지혈대 맨시간과 부위의 피부색을 관찰 기록한다.
- 5) 맨 부분을 노출시키고 높여준다.

화 상

○ 화상의 분류

1. 1도화상 : 피부가 붉어진 정도
2. 2도화상 : 피부면에 물집이 생긴 정도
3. 3도화상 : 조직이 파괴된 정도

○ 화상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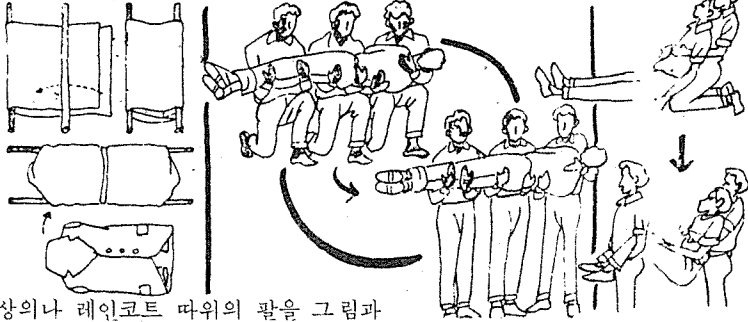
화상은 어느 부상보다도 통증이 심한편이고 가장 위험한 것은 충격(쇼크)과 감염이라 할 수 있다. 화상의 범위가 깊은 것 보다 정도가 덜해도 전신의 반 이상이 화상일 때는 생명이 위험하다.

○ 응급처치

1. 화상입은 즉시 찬물(흐르는)을 끼얹어서 식힌다.
2. 불에 타서 몸에 붙은 의복은 억지로 떼지 말아야 한다.

환자 옮기는 법

- ① 환자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옮김.
- ② 추운 겨울에는 보온에 유의하여 수시로 살펴본다.
- ③ 응급 들것은 널판지나 의자를 사용하고 그림과 같이 상의에 단추를 잠그어 사용하기도 한다.



상의나 레인코트 따위의 팔을 그림과 같이하여 막대를 끼운다.

3. 상처에 숨을 대지 말아야 한다.
4. 충격에 대한 처치를 해준다.
5. 물을 조금씩 먹인다. (식염수도 좋음)
6. 속히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경련

경련은 어린아이(6개월~2세)들에게 흔히 일어난다.

○ 원인

간질발작, 두부외상, 수막염, 일사병, 가스중독등이며 유아의 경우는 고열로 오는 경우가 있다.

1. 사고예방 조치

- 1) 흔들리지 않게하고 조용히 눕힌다.
- 2) 주위의 위험물을 제거한다.
- 3) 의복의 단추나 벨트(허대)를 풀어준다.
- 4) 혀를 깨물거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나무젓가락이나 스푼에 깨끗한 헝겊을 감아 물린다.
- 5) 구토시에는 목을 옆으로 돌려주어 이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
2. 일사병이나열성경련인 경우: 체온을 하강시켜줄 수 있게 옷을 벗겨주거나 찬물 찜질을 해준다.
3. 경련자체를 무리하게 멈추지 말아야 한다.
4. 정확한 관찰: 발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관찰해 기록한다.

納凉 특집

골 절

골절이란 뼈에 손상이 생긴것을 말한다.

○ 골절의 분류

1. 단순골절 : 뼈에만 손상이 생긴다.
2. 복잡골절 : 뼈가 부러져 피부를 뚫고 나오거나 혈관 또는 다른 조직의 손상을 동반한다.

○ 증세

1. 붓는다.
2. 다친부위에 통증이 있다.
3. 다친곳의 관절을 움직일 수 없다.
4. 형태의 변화가 있거나 출혈이 있다.

○ 응급처치

1. 악화를 방지키 위하여 골절된 양관절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2. 부목고정 : 골절부위가 움직이면 출혈과 동통이 유발되므로 널판지나 종이 상자 등을 이용하여 골절부분 상하를 고정시킨다.
3. 기도유지 :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목을 옆으로 돌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 주고 젓가락이나 수저에 깨끗한 헝겊을 싸서 물려준다.

약물중독

어떤 약물이던지 적량이상을 구강섭취, 흡입, 살포시에 중독이 된다.

○ 증세

의식이 없어지거나 혈압, 맥박, 호흡 및 동공의 크기에 변화가 온다.

○ 응급처치

1. 중독물질을 토해 내도록 한다.
입속에 남아 있는 것을 제거하고 소금물을 먹여 토하도록 해준다.
2. 중독물질의 흡수를 늦춘다.
· 병원에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면 우유나 달걀흰자 온수등을 먹인다.
3. 정확한 관찰 실시 : 마신 약물의 용기나 남아있는 약을 병원에 가져간다.

감 전

1. 세탁기, 텔레비전에 감전 되었을 때는 플러그를 빼거나 콘센트를 잡아챈다.

2. 고압선에 감전했을 때는 건조한 절연체 (나무나 플라스틱) 위에 올라서서 나무막대기 등으로 환자와 전선을 분리시킨다.
3. 심장이 멎거나 호흡이 정지하였으면 심장 마사지(그림)와 같이 인공호흡을 한다.

뱀에 물렸을때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을때에 인명피해가 있는 것이므로 증상과 모습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 증세

1. 동통 및 상처부위의 이상감각이 든다.
2. 현기증이 난다.
3. 구토, 설사, 저혈압, 발한이 나타난다.
4. 종창, 홍반, 반상출혈등이 나타난다.

○ 응급처치

1. 상처부위 청결 : 생리염수나 깨끗한 물로 계속 세척해 낸다.
2. 독의 확산 방지 : 독이 퍼지지 못하게 상처부위에서 (심장쪽으로) 윗부분에 지혈대를 묶은후 출혈시와 같은 방법으로 혈행을 막아준다.
3. 독 제거 : 병원후송이 30분이상 걸릴때는 상처부위를 (+)자로 절개하여 피가 나오도록 한 후 주사기나 펌핑기로 빨아낸다. (입으로 할때는 입안에 상처가 없는 경우에만 한다.)
4. 독이 온 몸을 돌게되면 전신에서 출혈이 있기 쉬우므로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소금물이라도 주어 혈액을 보충시키는 동시에 독소를 묽게 해주면 좋다.

※ 기 타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옮길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너도 나도 검사받아

숨은 질병 찾아내자

■ 한국기생충박멸협회 ■ 한국건강관리협회